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인애 의원

“구청장은 소속정당 초월한 당정협의 나서야”

3일 열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강북구청과 강북구 내 정당 간의 당정협의와 관련하여 발언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20일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을 지역위원회와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강북구청 각 국장들이 지역의 주요 업무를 논의하는 강북구 당정협의 회를 가진 점을 밝히고 “본 의원은 이 소식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북구는 어느 특정정당의 몫이 아닌 32만 구민의 강북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구청장은 어느 특정정당의 구청장이 아닌 32만 구민의 구청장이다. 구청장으로 출마할 때는 특정정당의 이름을 달고 나온다지만 당선된 후에는 정당을 초월하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전념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6·14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3번 연속하여 강북구청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구청장이 지난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속정당인 민주당 외에 강북구 내 다른 정당과 지역현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



유인애 의원

가”를 물었다.

유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도시 기반시설은 열악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4.6%, 노인어르신 인구 비율도 17.5%로 서울

시에서 가장 높은 강북구인 점을 밝히고 “이런 현안문제를 풀고 강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정정당의 힘으로도 구청장 개인의 역량으로도 불가능하다. 강북구내 모든 정당의 역량을 집결한다 해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인애 의원은 “구청장께서는 소속 정당만 참여하는 당정협의로 진정 강북구의 획기적 발전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고 “당리당략만 중시하는 행정정책을 강요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구민들의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된다. 공익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정당의 역량 결집해야”

유인애 의원

(자유한국당/번1·2동,수유2·3동)



▲ 유인애 의원.

유인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을 지역위원회와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강북구청 각 국 국장들이 지역의 주요 업무현안을 논의했던 강북구 당정협의회와 관련해 질문을 했다.

유 의원은 강북구는 어느 특정정당의 몫이 아닌 32만 구민의 강북구이기 때문에 이 소식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청장은 어느 특정정당의 구청장이 아닌 32만 구민의 구청장이며 구청장으로 출마할 때는 특정정당의 이름을 달고 나온다지만 당선된 후에는 정당을 초월하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전념할 의무가 주어진다 고 말했다.

유인애 의원은 박겸수 구청장에게 이

번 6·14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3번 연속하여 강북구청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속 정당인 민주당 외에 강북구 내 다른 정당과 지역현안을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내세울 만한 기업도 없고 도시기반시설은 열악하면서 노인어르신 인구 비율도 17.5%,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4.6%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아 강북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런 현안문제를 풀고 강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정정당의 힘으로도 구청장 개인의 역량으로도 불가능하며 강북구내 모든 정당의 역량을 집결한다 해도 쉽진 않다고 주장하면서, 박겸수 구청장은 이번 6.14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의 획기적 발전 구민과 함께 완성하겠다’ 고 약속했는데 소속 정당만 참여하는 당정협의회로 진정 강북구의 획기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유인애 의원은 당리당락만 중시하는 행정 정책을 강요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구민들의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상기시키며 당장 강북구는 전체 예산의 54% 2,900억 원을 복지에산으로 쓰고 있지만 재정 수입이 열악해 복지사업을 더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분발언〉

유인애, “당리당락 행정 구민 삶 더 나락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놓고 특정 정당 위한 구청장 비난



▲ 5분 발언 중인 유인애 강북구의회 부의장.

강북구청과 강북구 내 정당 간의 당정협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을 지역위원회와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각 국 국장들이 지역의 주요 업무를 논의하는 강북구 당

정협의회를 가졌다.

본 의원은 이 소식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북구는 어느 특정정당의 몫이 아닌 32만 구민의 강북구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은 어느 특정정당의 구청장이 아닌 32만 구민의 구청장이다. 구청장으로 출마할 때는 특정정당의 이름을 달고 나온다지만 당선된 후에는 정당을 초월하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전념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박겸수 구청장님께 묻고 싶다. 지난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속정당인 민주당 외에 강북구 내 다른 정당과 지역현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가?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세울 만한 기업을 유치하지도 못했고 도시기반시설은 열악하다.

강북구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4.6%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 노인어르신 인구 비율도 17.5%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강북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

이런 현안문제를 풀고 강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정정당의 힘으로도 구청장 개인의 역량으로도 불가능하다. 강북구내 모든 정당의 역량을 집결한다 해도 쉽진 않다.

박겸수 구청장께서는 이번 6.14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의 획기적 발전 구민과 함께 완성하겠다’ 고 약속했다. 소속 정당만 참여하는 당정협의회로 진정 강북구의 획기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당리당락만 중시하는 행정 정책을 강요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구민들의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된다. 비민주적인 행정에 실망이 크다. 공익이 먼저다.

강북구의회 유인에 의원 5분 자유발언

구청장은 소속정당 초월한 당정협의 나서야



지난 3일 제217회 제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인에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강북구 내 정당 간의 당정협의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을 지역위원회와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강북구청 각 국 국장들이 지역의 주요 업무를 논의하는 강북구 당정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히고 강북구는 어느 특정정당의 몫이 아닌 32만 구민의 강북구이며 구청장은 어느 특정정당의 구청장이 아닌 32만 구민의 구청장이다. 구청장으로 출마할 때는 특정정당의 이름을 달고 나온다지만 당선된 후에는 정당을 초월하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전념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박겸수 구청장은 이번 6·14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3번 연속하여 강북구청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속정당인 민주당 외에 강북구 내 다른 정당과 지역현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강북구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4.6%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또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노인어르신 인구 비율도 17.5% 등 강북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고 설명하고 이런 현안문제를 풀고 강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속 정당만 참여하는 당정협의로 진정 강북구의 획기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는 소속 정당만 참여하는 당정협의로 진정 강북구의 획기적 발전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고 “당리당락만 중시하는 행정 정책을 강요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구민들의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북구의회 유인에 의원, 5분 자유발언

“강북구 내 정당 간의 당정협의 나서야”



정 정당의 구청장이 아닌 32만 구민의 구청장이다. 구청장으로 출마할 때는 특정 정당의 이름을 달고 나온 다지만 당선된 후에는 정당을 초월해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전념할 의무가 주어

로도 구청장 개인의 역량으로도 불가능하다. 강북구 내 모든 정당의 역량을 집결한다 해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인에 의원은 “구청장께서는 소속 정당만 참여하는 당정협의로 진정 강북구의 획기적 발전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고 “당리당락만 중시하는 행정 정책을 강요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구민들의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공익이 먼저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에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3일 열린 제217회 제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청과 강북구 내 정당 간의 당정협의’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유인에 의원은 지난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을 지역위원회와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강북구청 각 국장들이 지역의 주요 업무를 논의하는 강북구 당정협의회를 가진 점을 밝히고 “본 의원은 이 소식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북구는 어느 특정 정당의 몫이 아닌 32만 구민의 강북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구청장은 어느 특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6.13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3번 연속해 강북구청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구청장이 지난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속 정당인 민주당 외에 강북구 내 다른 정당과 지역현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가?”를 물었다.

유 의원은 재정지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은 열악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4.6%, 노인어르신 인구 비율도 17.5%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강북구인 점을 밝히고 “이런 현안 문제를 풀고 강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의 힘으